

PROBLEM DEFINITION

50대 비개발자의 ‘자연어 기반 업무 프로토타이핑’

새 프로그램을 배우는 대신, 현장의 문제와 규칙을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로 정의하고 반복 개선했습니다.

01	02	03	04	05
문제 정의	요구조건 구조화	AI 생성	현장 테스트	피드백·개선

BEFORE 상용 프로그램 탐색 → 사용법 학습 → 필요 없는 기능까지 감수 → 불편하면 참고 사용	WITH AI 내 업무를 설명 → 필요한 기능만 정의 → 결과를 직접 시험 → 말로 수정 요구 → 업무 방식에 맞게 개선
--	--

핵심 전환

사람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배우는 방식에서
AI가 사람의 업무 구조를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용 발주시스템 대신 ‘최소기능 업무도구’를 정의하다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주문 흐름만 추려 AI와 대화하며 작동 가능한 발주도구로 구현했습니다.

AI와 대화해 만든 맞춤형 발주도구

복잡한 상용 프로그램 대신, 실제 업무 흐름에 필요한 기능만 남겼습니다.



거래처 선택 → 해당 품목 선택 → 수량 조절 → 발주서 확인

FUNCTION MAP

VENDOR

거래처 선택

FILTER

업체별 품목 표시

QUANTITY

+ / - 수량 조절

PREVIEW

발주서 확인

MANAGE

업체·품목 추가/삭제

NATURAL LANGUAGE REQUIREMENTS

“업체를 먼저 선택하게 해줘.” “그 업체 품목만 보여줘.”

“수량은 + / - 로.” “업체와 품목도 추가할 수 있게.”

업무 지식 → 자연어 요구사항 → AI 프로토타입 → 실제 사용 → 수정

첫 결과가 아니라 ‘수정 루프’가 핵심이었다

AI의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지 않고, 실제 업무 흐름에 대입해 어긋나는 부분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용 흐름: 발주서 확인과 전송

필요 수량을 고른 뒤 발주서를 확인하고, 복사하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발주시스템

※ 품목관리

1. 거래처 선택

도도

수산

3. 발주서 확인

[[도도 발주]]
원두 : 2
시럽 : 1

수정하기

발주서 복사

카톡 등으로 보내기

*카톡 등으로 보내기가 지원되지 않는 휴대폰에서는 '발주서 복사' 후 카카오톡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AI의 첫 결과를 그대로 쓰지 않고 실제 사용 후 요구사항을 계속 수정했습니다.

1 GENERATE

필요한 기능을 말로 설명

2 TEST

실제 흐름대로 사용

3 FEEDBACK

불편·누락 조건 전달

4 REFINE

수정 결과 재검증

NO-CODE가 아니라, NO-LEARNING-CURVE에 가까웠습니다.

코딩을 새로 익힌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 일’을 AI에게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근무표를 ‘표’가 아니라 제약조건의 집합으로 설명하다

단순 순번 배치가 아니라 현장 규칙을 구조화하고, AI가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반복 조정했습니다.

세부 규칙까지 반영한 월간 근무표
근무 조합뿐 아니라 ‘이름 위 2:30 = 조기퇴근’ 규칙까지 AI와 대화하며 맞춰 갔습니다.

2027년 2월 근무표						
근무일수 지 21명 수 14명 은 21명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지 2:30 은	2 지 2:30 은	3 지 2:30 은	4 지 2:30 은	5 지 2:30 은	6 지 2:30 은	7 수 2:30 은 지
8 지 2:30 은	9 지 2:30 은	10 지 2:30 은	11 지 2:30 수	12 지 2:30 은	13 수 2:30 은	14 지 2:30 은 수
15 지 2:30 수	16 수 2:30 은	17 지 2:30 은	18 지 2:30 수	19 수 2:30 은	20 지 2:30 은	21 지 2:30 수 은
22 수 2:30 은	23 지 2:30 은	24 지 2:30 수	25 수 2:30 은	26 지 2:30 은	27 지 2:30 수	28 수 2:30 은 지

파란 동그라미=토요일 특근 · 빨간 동그라미=일요일 휴무 · 2:30=조기퇴근

CONSTRAINTS

DAILY STAFFING
매일 기본 2명

REST CYCLE
개인별 근무·휴무

SATURDAY
특근 규칙

EARLY LEAVE
근무조합별 2:30 순환

CONTINUITY
이전 순번을 이어서 적용

Human Rule → AI Structuring → Schedule Generation → Human Validation

AI가 공정성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한 규칙을 AI가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AI가 대신한 업무보다 더 중요한 변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서 ‘필요한 도구를 정의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OPERATION

발주 흐름 단순화
필요 기능 중심의 도구 사용
보고 가능한 결과물 생성

COLLABORATION

근무 규칙의 명시화
같은 기준을 표로 확인
최종 판단은 사람이 수행

ACCESSIBILITY

개발 지식보다 업무 지식 활용
자연어로 요구사항 전달
중장년층도 재현 가능

RESPONSIBLE AI

개인정보 최소화
AI 결과 재검토
사람에게 영향 주는 결정은 인간 검증

“AI가 대신 해주는 일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다.”

나는 AI를 배우지 않았다. AI에게 내 일을 가르쳤다.